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 예방 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

엄숙¹ · 최유진^{2‡} · 권수진³

¹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²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³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Effects of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on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of Middle-aged Class

Suk Eom¹, Yu-Jin Choi^{2‡}, Su-Jin Kwon³

¹Dept. of Dental Hygiene, Taegu Science University,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Youngsan University,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Busan Institute Science & Technology,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on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of middle-aged clas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middle-aged adults in 40-65, residing in Y region of Gyeongnam, and total 294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of two variables such as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p<.05$) and knowledge about periodontal disease($p<.01$)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Such variables like sex($p<.05$), age($p<.01$),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health($p<.001$), and knowledge about periodontal disease($p<.01$)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Conclusions: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vitalize the relevant researches in various perspectives.

Keywords Middle-aged class,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Oral hygiene products, Two major oral diseases

Received on Nov 08, 2021. Revised on Dec 16, 2021. Accepted on Dec 20, 2021.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fcyj@ysu.ac.kr)

I. 서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오늘날 건강의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1]. 이러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구강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일컬어 양대구강병이라 하며, 한 번 발생된 후 지속적인 악화과정을 겪는 전형적인 만성질환으로 구강보건 분야에서 주요한 관리 대상이 된다[1,2]. 2015년 건강보험 심사 통계자료(다빈도 상병 순위별 요양급여 현황)에 의하면 두 가지 양대구강병 관련 진료인원 및 그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의 약 42.1%가 40-50대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3]. 남궁[4]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주요 구강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크기를 연구하여 보건사업 정책의 결정 과정에 합리적 대응을 제시한 바가 있다.

성인의 대부분은 그동안 발생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축적되어 있으며, 계속 발생되고 진행된다. 하지만 성인기에는 바쁜 사회활동 등으로 예방 또는 계속 구강건강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상실된 치아가 많아 자연스레 보철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흔히 치아우식증은 주로 유년기, 학령기, 청년기에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치주질환은 대부분의 성인에서 발생하여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성인기와

노인기 구강건강을 저해하여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표적 구강질환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과임상현장의 디지털화 및 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양대구강병은 여전히 주요한 구강건강 문제이며 노인기를 앞둔 중·장년층에서는 삶의 질 차원에서 합리적,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에 속한다.

양대구강병의 관리를 위해서는 치면세균막의 제거가 필요하며 치면세균막 제거의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칫솔질이라 할 수 있다[6].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아의 형태적 변화, 개별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치아 및 구강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을 포함한 치료, 관리, 올바른 식습관 등의 구강병 예방행동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상자별 인지와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7-9]가 주를 이루며,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연구[10], 성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영향요인 연구[11], 중년층의 구강건강교육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구강효능감, 구강위생용품 사용,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12]가 있었다. 구강병 예방실천에 관한 연구는 성인의 구강건강실천 결정요인 모형에 관한 허[13]의 연구가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행동의 관계 연구[14],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구강건강지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15] 및 노인의 양대구강병 영향요인에 관한 원과 박[16]의 연구가 있었지만 대상자별 제한적 요인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주요 만성적 구강건강 문제에 기반한 지식이 요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정도와 요인별 상관성을 파악하고,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양대구강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삶의 질적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고 실천가능한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Y지역에 거주 중인 40대 이상~65세 미만의 중·장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육 훈련된 면접원을 통해 거리와 마을 회관,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334명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294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 수가 17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94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연수입, 교육정도, 구강보건 교육경험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주요변인을 구성하는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양대구강병 예방지식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은 김[1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도구(총 29문항)를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일치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각 7문항씩 총 14문항, 3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대구강병에 관한 예방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에 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700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에 관한 문항은 이[18]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를 검토 및 적용하였으며,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총 10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2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구강병 예방실천

구강병 예방실천은 김[1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를 적용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4개의 문항을 제외한 식습관 실천 3문항, 치아관리 실천 8문항, 검진과 치료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병에 대한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5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25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응답자 294명중 남자 143명(48.6%), 여자 151명(51.4%)이었고, 연령분포에서는 40대가 97명(33.0%), 50대 97명(33.0%), 60세에서 64세가 100명(34.0%)였다. 연수입은 2000만원 이하 67명(22.8%), 2,000~3,000만원 미만 72명(24.5%), 3,000~4,000만원 미만 43명(14.6%), 4,000~5,000만원 미만 38명(12.9%), 5,000만원 이상 74명(25.2%)였다. 교육정도는 고졸 54명(18.4%), 전문대졸 45명(15.3%), 대졸이상 195명(66.3%)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다가 125명(42.5%), 없다 169명(57.5%)였다<Table 1>.

2.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평균 표준편차

본 연구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 변인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Kline(2005)의 기준에 따라 왜도

의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첨도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40세 이상 64세 미만인 중·장년층 응답자의 양대구강병 예방 지식은 14점 만점 중 평균 11.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7점 만점 중 평균 5.89점을 보였으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평균 5.48점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평균 2.63점으로 보통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은 평균 3.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구성요인 중 식습관 실천이 3.33점, 치아관리 실천이 3.58, 검진과 치료 실천 3.2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관계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예방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r=.16, p<.01$)을 가지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상관성이 없었으나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성($r=.20,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3,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N=294)

Variables		N	%
Gender	Male	143	48.6
	Female	151	51.4
Age	40~49	97	33.0
	50~59	97	33.0
	60~64	100	34.0
	2,000 Under	67	22.8
Annual income*	2,000~3,000 Under	72	24.5
	3,000~4,000 Under	43	14.6
	4,000~5,000 Under	38	12.9
	5,000 Over	74	25.2
	High school	54	18.4
Level of education	Collage	45	15.3
	University+	195	66.3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125
No		169	57.5

Income(year)*: 단위(만원)

<Table 2>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2.00	14.00	11.37	2.20	-1.45	2.63
-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0	7.00	5.89	1.06	-1.70	5.03
-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0	7.00	5.48	1.53	-1.11	.9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1.00	4.40	2.63	.68	-.12	-.01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1.89	4.78	3.41	.52	-.04	.14
- Practice of dietary habit	1.00	5.00	3.33	.71	-.50	.68
- Practice of dental care	2.00	5.00	3.58	.57	.05	.01
-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1.00	5.00	3.26	.72	-.21	.29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Variables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Practice of dietary habit	Practice of dental care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1.00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77***	1.00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90***	.41***	1.0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16**	.04	.20***	1.00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23***	.11	.25***	.45***	1.00			
Practice of dietary habit	.14*	.14*	.11	.24***	.61***	1.00		
Practice of dental care	.15**	.04	.20***	.30***	.85***	.43***	1.00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23**	.11	.25***	.46***	.85***	.34***	.50***	1.00

*p<.05, **p<.01, ***p<.001

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r=.14, .15, .23, p<.05$). 치아 우식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중 식습관 실천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14, p<.05$).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 요인중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20, .25, p<.001$).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45,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r=.24, .30, .46, p<.001$).

중 · 장년층의 일반적 사항과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 예방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성별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치주질환 관련 지식과 정의 상관($r=.17, .17,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는 상관성이 없었고,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15, p<.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중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을 보였다($r=.16, p<.01$).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구강병 예방지식이 높고, 구강병 예방실천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는 상관성이 없었고,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r=.28,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실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Variables	Gender	Age	Annual income	Degree of education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17**	.01	.05	.09	-.07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11	-.06	.03	.10	.01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17**	.06	.06	.06	-.10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05	.08	.08	.12*	-.19***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15*	.28***	.07	.11	-.33***
Practice of dietary habit	.05	.25***	.01	.05	-.19***
Practice of dental care	.11	.24***	.05	.07	-.21***
Practice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16**	.21***	.08	.12*	-.34***

* $p < .05$, ** $p < .01$, *** $p < .001$, Gender: M0, F1;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Yes=0, No=1

연수입은 측정변인들과 상관성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정도는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검진과 치료실천과 정적 상관($r = .12, .12, p < .05$)을 보여, 교육정도가 높을 때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치과검진 및 치료 실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은 양대구강병 예방지식과는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부의 상관($r = .19, p < .001$)을 보였고, 구강병 예방실천과도 부의 상관($r = .33, p < .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구강병 예방실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장년층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인의 VIF 계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 판단의 기준인 VIF 10 이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회귀모형에서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 의하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는 구강병 교육경험($\beta = -.14, p < .05$), 치주질환지식($\beta = .19, p < .01$)의 두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

생용품 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구강병 예방실천에는 성별($\beta = .11, p < .05$), 연령($\beta = .27, p < .01$), 구강병 교육경험($\beta = .26, p < .001$), 치주질환지식($\beta = .17, p < .01$)의 세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 구강병 예방실천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만성 구강질환에 속하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양대구강병에 관한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은 14점 만점 중 평균 11.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7점 만점 중 평균 5.89점을 보였으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평균 5.48점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평균 2.63점으로 보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자유형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김[17]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용품사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치주질환 관련지식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칫솔질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종류, 사용법 등 환자의 현재 구강상태에 따른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oral health preventive practi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	p	VIF	R ²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Constant)	2.03	.31		6.57	.000		
	Gender	.04	.08	.03	.43	.668	1.207	
	Age	.06	.05	.07	1.17	.244	1.032	
	Annual income	.02	.03	.04	.71	.481	1.201	
	Degree of education	.07	.05	.08	1.34	.181	1.135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20	.08	-.14	-2.42	.016*	1.089	.082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3	.04	-.05	-.73	.463	1.236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8	.03	.19	2.96	.003**	1.261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Constant)	2.55	.22		11.77	.000***		
	Gender	.12	.06	.11	2.00	.046*	1.207	
	Age	.17	.03	.27	5.15	.000***	1.032	
	Annual income	.03	.02	.08	1.38	.170	1.201	
	Degree of education	.04	.04	.05	.96	.338	1.135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28	.06	-.26	-4.85	.000***	1.089	.237
	Knowledge related to dental caries	.02	.03	.03	.56	.577	1.236	
	Knowledge related to periodontal disease	.06	.02	.17	2.98	.003**	1.261	

Gender: M0, F1; Educational experience of oral diseases: Yes=0, No=1
 *p<.05, **p<.01, ***p<.001

관련 교육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20]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 관련 지식에서 특정항목별 평균이하 수준의 지식정도를 보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보건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강병 예방실천은 평균 3.41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구성요인 중 식습관 실천이 3.33점, 치아관리 실천이 3.58, 검진과 치료 실천 3.26점으로 나타났는데, 원과 박[15]의 연구에서 구강건강 실천 항목 중 치과방문, 정기적 치석제거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병 예방실천 정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중 · 장년층의 양대구강병예방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병예방 실천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결과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적 상관성을 가지며,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상관성이 없었으나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위생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서 치주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원과 박[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치주질환을 관리하는데 칫솔 이외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치아우식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식습관 실천과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적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 중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과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치아우식 관련 지식의 경우 대상자들의 평소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많다는 일반적 구강지식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지며, 치주질환 관련 지식은 식습관이 아닌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비롯한 치아관리 및 검진과 치료가 관련이 높다 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실천의 하위요인인 식습관 실천, 치아관리 실천, 검진과 치료 실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여 양대구강병 예방실천을 위해서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칫솔사용과 더불어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중·장년층의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사용과 구강병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련 지식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병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치아우식증에 관한 지식은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예방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이 대부분 치아우식보다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연령대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보여진다. 유사한 결과로 박과 원[19]의 연구에서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고, 엄과 최[12]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칫솔 이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정[6]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구강위생용품 인지정도와 사용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학령기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구강상태의 변화 및 개별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사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구강병예방 실천에는 성별, 연령, 구강병 교육 경험, 치주질환 지식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구강병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치주질환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병 예방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는데 도[20]의 연구에서 성별에서 여자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건강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다른 결과로 원과 박[15]의 연구에서는 방문보건경력이 구강건강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와 대상이 달라 일반적 특성 항목을 구성함에 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 지식,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구강병 예방 실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중·장년층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양대구강병 예방지식이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 결과를 토대로 양대구강병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건강한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한 향후 양대구강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을 포함한 구강보건교육, 개별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중요성과 사용법 등을 포함한 중·장년층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경남 Y지역에 거주 중인 40대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장년층의 주요 만성적 구강건강 문제에 기반한 지식이 현재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 예방 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정의 상관성($p<.01$)을 가지며,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은 양대구강병 관련 지식 및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p<.05$)을 가지는 것으로 연령은 구강병 예방실천과 정의 상관성($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도는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검진과 치료실천과 정의 상관($p<.05$)을 보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p<.001$) 및 구강병 예방실천과 부의 상관($p<.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구강병예방 실천도가 높았다.
3.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구강병예방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에는 구강보건 교육경험($\beta=.14, p<.05$), 치주질환지식($\beta=.19, p<.01$)의 두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병 예방실천에는 성별($\beta=.11, p<.05$), 연령($\beta=.27, p<.01$), 구강보건 교육경험($\beta=.26, p<.001$), 치주질환지식($\beta=.17, p<.01$)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의 대부분이 경험하며 평생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야 할 양대구강병 관리에 관한 이해도와 실천도를 높이고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다가올 노년기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향후 중·장년층을 포함한 성인인구의 계속구강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Kang BW et al, Public Oral Health, fifth edition, KMS, Seoul, Korea, p4, p9, 2019.
2. Nam SM: A Study on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nd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s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11:373-381, 2011.
3. [http://www.hira.or.kr\(Health 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http://www.hira.or.kr(Health 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
4. Namkoong EJ: Estimating the burden of major oral disease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Gangneung-Wonju University, Gangneung, pp.1-70, 2017.
5. Hong MH, Kim YS: A Study on Periodontal Disease Awareness and Periodontal Health Status among Industri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216-224, 2009.
6. Lee KH, Jung ES: Effects of Education about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ir U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45-256, 2015.
DOI: 10.14400/JDC.2015.13.2.245
7. Jung GO: A survey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 and awareness some of the middle age people, J Kore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9(4):580-593, 2009.
8. Yang KY, Jeong SR, Jang JE: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by Dental Patients,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4):91-103, 2015.
DOI: 10.12811/kshsm.2015.9.4.091
9. Yoon HS: A Study on Knowledge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among Adul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9(3):339-344, 2009.
10. Oh NR, Jeong MA: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of Oral Hygiene Products Management of College Students, 18(7):.313-321, 2018.
DOI: 10.5392/JKCA.2018.18.07.313
11. Choi ES, Jeong SR, Cho HA: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ral Hygiene in Adults,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6):775-785, 2015.
DOI: 10.17135/jdhs.2015.15.6.775
12. Eom S, Choi YJ: Oral Health Beliefs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of Middle-aged People, Oral Efficacy,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156-163, 2020.
DOI: 10.22156/CS4SMB.2020.10.06.156
13. Heo SE: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eterminants of Oral Health Practice in Adults Aged 20 Years or Older, Journal of the Convergence Society, 8(9):161-174, 2017.
DOI: 10.15207/JKCS.2017.8.9.161
14. Seong JM, Lee SK: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in Adolescent Students in IT Age, Journal of the KIECS, 12(3):.507-514, 2017.
DOI: 10.13067/JKIECS.2017.12.3.507
15. Won JH, Park I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visiting health care personnel, 11(7):.2459-2467, 2010.
16. Won YS, Park AR: Factors Influencing on Serious Dental Disease of Korea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267-275, 2018.
DOI: 10.14400/JDC.2018.16.7.267
17. Kim NY: Comparison of Health Knowledge, Practice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General Dental Patients and Those Who Received Incremental Dental Care, Inje University, Busan, pp.35-39, 2012.
18. Lee SY: The Influence that dental hygiene awareness and practice has before and after childrenbirth.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p. 79, 2010
19. Park CM, Yoon HS: Oral heal care behaviors of male adults in the region of busan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nce and the implementation or non-implementation of regular checkup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119-128, 2018.
DOI: 10.21742/AJMAHS.2018.08.71
20. Do Ji: The Effect Oral Health Education has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 Concerning Oral Health -focused on the area middle school &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heongyang, Chungcheongnamdo Province-,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pp.1-63, 2013.